



가공산업 활성화

계란 집하장의 GP기능 활성화를 위한 계란등급판정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1. 서론

국내 축산업의 환경은 국제화·대형화·집중화되는 사회적 변화와 고품질의 안전식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급속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급식법 개정과 함께 품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축산업은 계열화, 브랜드화, 친환경 축산체제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계란산업의 경우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생산에서 유통·판매까지 생산농가가 신경써야 하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타 축종에 비해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리고, 소비자의 요구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통



원 경 환

축산물등급판정소 사업본부 대리

업자 중심의 유통구조는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계란산업의 보다 발전적인 산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관련자의 의견과 행동방향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계란등급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계란등급제도의 성과

2001년 농림부는 “양계산업 종합발전 대책”으로 계란의 품질향상을 위한 계란집하장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계란등급제도 시행을 검토하였으며, 같은해 12월 12일 한국양계농협 대구집하장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7년 4월 현재 전국 17개 집하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계란 등급판정은 계란의 품질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난각 및 포장지에 품질등급을 표시함으로써 생산자, 유통업체, 소비자에게 거래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래규격을 확립함으로써 유통의 합리화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품질에 따른 거래관행 정착으로 부가가치 상승효과가 있다.

계란 등급제도의 시행효과를 살펴보면 시행 초기 파각율이 15~25%이었던 것이 5~9% 이내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세척, 코팅으로 계란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품질등급 판정으로 인한 계란의 품질고급화는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인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판매유통에 기여하게 되며 계란의

품질 및 위생·안전성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소비확대에 기여함으로써 계란가격 하락을 저지하고 있다. 이는 산란주령 및 농가의 품질관리 상태에 따라 거래가격이 차별화됨으로써 일반란의 가격변동폭에 비해 등급란은 일정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계란등급제 활용효과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생산자의 36.4%가 생산체계가 개선되어 전반적으로 품질이 향상되었다 하였으며, 27.4%가 고품질 계란으로 차별화하여 수익이 향상되었으며, 생산자 보호 및 권익을 향상하고 계란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의견이 각각 18.2%로 계란생산과정에서 등급판정이 생산설비 및 계군 관리에 기여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통업체의 48.1%가 계란품질에 대해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되었으며, 계란의 위생적인 처리로 안전성이 향상되었다는 업체는 37%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계란등급제도는 품질향상과 품질에 따른 거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시행의 목적에 맞게 시행되어 계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등급판정 물량 확대와 다양한 제도활용도 제고를 위한 계란 산업 종사자의 관심이 요구되는 시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3. 계란 등급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집하장 육성의 필요성

계란 등급판정량은 2002년 27,653천개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2006년에는 211,207천개로 전체 추정 생산량의 2% 정도로 그 수준이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로 학교급식 등 소비자의 수요에 충분한 공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계란 등급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란 집하장이 육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계란 집하장 육성은 계란의 유통체계를 단순화하여 대량으로 처리되는 계란의 위생 및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유통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다수의 영세한 생산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을 수 집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품질이 좋은 계란을 공급하여 계란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품질이 안좋은 계란은 가공하여 처리함으로써 난가공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생산농가에서는 좋은 계란을 생산하는데 전념하고 집하장에서는 마케팅과 영업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계란 브랜드를 육성하여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로 유통·판매가 가능함으로써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생산자의 대응력을 키워 생산농가의 소득증가와 계란산업발전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계란집하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등급제도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 다수의 생산농가가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에서 집하장 육성의 어려운 점과 이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이는 계란 등급제도를 활용한 집하장 육성을 근간으로 한다.

첫째, 계란시장에 직접 접근하지 않으면 손실이 클 것이라는 생산농가의 인식이다. 이는 일정한 판매처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계란상인 등 유통업자의 상술에 생산자는 후장기 등 밀어내기 판매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계란 산업의 오랜 관행 때문에 생산농가가 직접 판매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생산농가의 인식은 다수의 소규모 생산·판매 농가의 출현으로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급조절에 대한 대응과 생산자 중심의 유통구조 마련이 어려워 보다 더 큰 손실로 다가온다. 따라서 생산농가는 고품질 계란을 생산하는데 전념하고 집하장 중심의 브랜드경영

체는 영업력을 극대화하여 생산농가에게 적정 가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계란의 품질등급별 가격정산을 위한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계란집하장 스스로 시장경제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집하장 경영자는 계란 가격의 진폭에 따라 원료란 확보의 어려움과 과잉으로 공급(조합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되는 계란의 처리문제 등으로 인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계란집하장 육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집하장 스스로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생산농가에서 일정수준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인식강화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농가가 참여한 계란집하장 중심의 브랜드경영체 출범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면 한다.

셋째, 지역단위의 브랜드 클러스터(협력체계) 구축 등 계열화를 통한 지역브랜드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계란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1차산업으로 최근의 FTA 등 국제화의 가속화 추세에서 식품안전의 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계란산업도 계열화·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별 클러스터의 구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집하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농가와 집하장 경영자 간의 신뢰관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생산농가는 집하장 경영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정 이윤을 보장해야 하고, 집하장 경영자는 생산자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계란집하장 중심의 브랜드경영체의 필요성과 생산농가와 브랜드경영체간의 품질등급별 가격정산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았다.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다수의 생산농가가 참여한 계란집하장 중심으로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계란산업의 최우선과제인 집하장 중심의 브랜드경영체 육성을 함께 연계하여 계란등급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계란의 품질별 등급별 가격정산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자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바라며 많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양계**